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I AM TRAITOR

가제 : 나는 배신자

저자 : Sif Sigmarsdottir

출판사: Hodder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7년 9월 7일

분량 : 29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Freya's Saga』로 아이슬란드 문학상 후보에 오른 YA 베스트셀러 작가의 SF 스릴러
- ★ 정말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지구로 온다면? 오랜 세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온 주제를 참신하고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로 그린 소설

에이미의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에 귀청이 떨어질 듯한 사이렌이 울리던 그 날, 1층 차고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에이미는 바로 눈 앞에서 이웃이 거대한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는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구가 존재하는 우주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면 어떨까?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각자 살아가면 문제될 것 없겠지만, 그들이 지구로 와서 사람을 데려간다면?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면? 아이슬란드에서 10년 넘게 베스트셀러 YA 소설을 여러 편 발표하며 큰 인기를 누려온 작가는 처음 영어로 완성한 이번 소설에서, 외계인과 지구의 멸망이라는 해묵은 주제를 참신하고 흡입력 있고 이야기로 그려낸다. 외계인들이 가지고 온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은 파이프가 오직 십대 아이들만 골라서 빨아들이고, 그 파이프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사라진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섬뜩한 상황 속에서 열네 살 주인공 에이미 설리반이 보여주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 그리고 뜻밖의 풋풋한 로맨스와 생존이 걸린 갈등을 '일기'의 형태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에이미가 두 살 많은 오빠, 두 살짜리 막내 동생 엠마와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사이렌이 온 동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친구 마틸다와 채팅을 하던 에이미는 또 다른 친구인 아니타의 집에 며칠 째 인기척이 없다는 마틸다의 말에 무슨 일일까 염려하던 참이었다. 설마 외계인들이? 또 다른 우주에서 왔다는 낯선 존재들의 소식이 들려온 후, 주변에서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에이미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로 시작된 그 날의 악몽 같은 일로 에이미와 가족들은 실종된 사람들이 처했을 운

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보통 5분이면 끝나던 경보는 30분이 지나도 그칠 줄을 몰랐다. 사이렌이 울리면 전기도 함께 나가버렸고, 아파트 사람들 모두가 하는 수 없이 집에서 나와 차고에 모였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어색한 침묵 속에서 얼른 고요가 찾아오기만 기다리던 모두의 바람과 달리 머리가 어질어질할 만큼 길게 이어지던 소음은 거의 40분이 넘어서야 겨우 그쳤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차고에서 나가 자기 집으로 향하려던 찰나, 헬리콥터가 바로 옆에 내려 온 것처럼 엄청난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눈도 제대로 뜯 수 없는 강력한 바람 사이에서 에이미는 초대형 빨대 같은 거대한 원통을 보았다. 눈이 달린 것처럼 사람들 사이를 헤집던 그 파이프는 에이미 바로 앞을 찾아와 가는 길을 가로막더니, 바로 옆에 있던 이웃집 사람을 쏙 빨아들였다. 에이미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비극적인 운명은 바로 그 날 시작되고 말았다.

유튜브에서는 영국 곳곳에서 에이미가 본 것과 같은 이상한 물체에 십대 아이들이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삼시간에 번졌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에이미 또래의 아이들 중 엄청난 숫자가 사라지고 말았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자취를 감추고, 에이미는 이제 자신의 차례가 다가왔음을 직감한다. 무조건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조건으로 형체도, 실체도 알 수 없는 외계인의 요구에 응하기로 결심한 에이미는 시저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을 만나고, 자신의 희생으로 지구를 구하려던 결심이 크게 흔들린다. 시저와 함께하려면 이미 약속한 일에서 도망쳐야 하고,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에이미는 어떤 선택을 할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끈질긴 고투를 그린 판타지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시프 지그마어도티르(Sif Sigmarsdottir)는 아이슬란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 리딩 대학교에서 아동문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0년 간 십대 청소년을 위한 소설을 여러 편 발표하고 아이슬란드의 유명 신문과 매거진 등에 신문기사, 도서 리뷰 등의 글을 기고해 왔다. 아이슬란드 주요 신문인 「The Frettabladid」에서 정치 관련 칼럼을 맡고 있다.

제목 : INVISIBLE FAULT LINES

가제 : 보이지 않는 틈 사이로

저자 : Kristen-Paige Madonia

출판사: Simon & Schuster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6년 5월 3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마음을 강하게 잡아 끌며 지진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 ... 미스터리, 역사, 판타지가 결합된 흥미로운 소설”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 * “아버지가 실종된 현실, 그로 인한 상실감을 받아들여야 하는 가슴 아픈 과정을 생생하게 그렸다.” - 「커커스 리뷰」
- * 주디 블룸(Judy Blume)이 “실력이 뛰어난 젊은 소설가”라고 칭찬한 작가의 두 번째 소설

2006년 4월 18일은 칼리에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이었지만, 결국 그 날은 ‘아빠가 사라진 화요일’이 되어 버렸다. 일하러 간 아빠는 아무 연락도, 예고도 없이 돌연 사라졌다. 집에도 오지 않고 일터인 공사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일터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건 아닐까?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기억상실에 걸린 상태로 헤매고 있으면 어찌지? 고등학교 졸업반인 칼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머릿속에서 아빠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마음만 졸이며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다가 진이 빠져버린 칼리는, 직접 아빠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빠가 목격된 공사장에는 늘 매고 다니던 백팩이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다. 수상한 범주가 저질러진 흔적도 없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빠의 얼굴이 나타나 칼리를 충격에 빠뜨린다. 무려 100년 전에 찍힌 사진에 아빠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친구의 제안으로 과거 자료와 사진을 전시하는 행사에 가게 된 칼리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당시 촬영된 사진들을 훑어 보다가 기겁한다. 아빠와 너무 닮은 사람이 담겨 있었다. ‘불길에 휩싸인 새크라멘토 스트리트’라는 설명이 붙은 그 사진은 시커먼 연기와 함께 활활 불타는 시내를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 언덕에는 마치 영화관 좌석처럼 의자가 여러 개 줄지어 있고,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인파가 놀란 얼굴로 화염과 연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도시를 바라보는 그들의 충격 받은 표정과 망연자실한 눈길이 생생하다고 느끼던 찰나, 칼리의 눈에 작은 안경을 쓴 짙은 색 머리카락의 남자가 들어왔다. 코의 형태, 호리호리한 체형, 무언가를 염려할 때 나타나는 입매, 고개 숙인 얼굴의 각도, 모든 것이 아빠와 일치했다.

오래 전 그 지역에 살았던 아빠의 친척일까? 아니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시간여행이 실제로 일

어난 것일까? 칼리는 샌프란시스코 지진과 이후 벌어진 모든 일들을 살살이 조사하기 시작한다. 짧은 사람이라고 하기엔 사진 속 남자는 아빠가 분명하며, 이유나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을 건너 과거로 가버렸고 확실한 것이었다. 소설은 아빠의 행방을 찾는 칼리를 잠시 두고, 끔찍한 지진을 겪고 겨우 살아난 한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남자는 샌프란시스코 곳곳을 목적 없이 방황하지만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기분을 떨치지 못한다. 칼리는 절친한 친구 두 명과 함께 하는 락 밴드의 첫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몰두하면서 비극적인 현실을 잊어보려고 애쓴다. 제 일처럼 도와주는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동시에, 칼리는 아빠와 달리 사이가 소원했던 엄마와 실종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전에는 몰랐던 일들을 깨닫고 엄마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

칼리의 아빠가 사라진 이야기는 역사적 근거와 지구과학의 원리가 동원되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전개되고, 칼리 자신과 또래 친구들에게 찾아온 로맨스, 좋아하는 일을 잘 해내고 싶은 열정, 부모를 이해하며 조금씩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아무리 애태워도 어쩔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을 생생하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틴 페이지 마도니아(Kristen-Paige Madonia)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예술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네브라스카 대학교와 버지니아 대학교, 제임스 매디슨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2013년에 소설 『Fingerprints of You』를 발표했다. 그 외 「Greensboro Review」, 「The New Orleans Review」, 「American Fiction」, 「Five Chapters」를 통해 단편소설이 소개됐다.